

“소록도 다시 오겠다” 약속지킨 歌王

**조용필씨 1년 만에 멋진 공연 선사
300여 한센인들 손 잡고 인사 나눠
주민들 “안식과 위로 됐다” 눈시울**

한센인들의 보금자리인 고흥군 소록도에 가수 조용필의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조용필은 지난 15일 소록도를 1년여만에 다시 방문했다. 지난해 어린이날 영국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곳을 찾아 한센인에게 멋진 공연을 선사했던 그는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조용필은 공연에 앞서 “작년에 처음 왔는데 두 곡밖에 부르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며 “올해도 이렇게 화창한 봄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한센인들을 위해 출연료 없이 전속밴드와 무대에 선 조용필은 주옥같은 히트곡들을 열창해 한센인과 자원봉사자, 주민들을 감동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그의 열창에 감동받은 관객들은 “오빠 멋져요”를 연호했고, 일부 관객은 “조 선생님 늙지 않으셨네요”라며 혼신을 다한 열창에 감격해 했다. 두 곡을 부른 조용필은 관객들로부터 신장곡을 받았고 이곳저곳에서 ‘허공’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겨울의 찻집’ 등 다양한 신장곡들이 쏟아졌다. 함께 부르지는 조용필의

유도에 관객들은 모두 하나돼 주옥같은 그의 명곡들을 따라 불렀다. 조용필은 중간에 한센인들을 무대로 불러내 함께 노래와 춤을 추기도 했고 직접 객석으로 내려가 자리에 모인 한센인 300여명 모두의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공연 중간에는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이 후원한 T셔츠 1500점과 익명의 기업인이 후원한 영양제 등의 전달식도 열렸으며, 조용필은 한센인에게 직접 T셔츠를 입혀주기도 했다. 조용필은 마지막 곡 ‘그대 발길 머무는 곳’을 부르며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봐요”라며 1시간여에 걸친 감동의 무대를 끝냈다. 소록도 주민 이남철(62세)씨는 “자신들이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에게 조용필의 방문과 공연은 마음의 안식이자 위로가 된다”며 “많은 유명가수들이 소록도를 찾았다고 오겠다고 했지만 그 뿐이었다. 그런데 조용필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감격해 했다. /동부매체본부=주최기자 gjuu@



가수 조용필이 지난 15일 고흥군 소록도를 찾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하던 도중 한 노인의 손을 맞잡고 함께 노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아오는 전남’ 작년 귀농 768가구

경북 이어 두번째 ..고흥 125가구 도내 최대

지난해 전남에 귀농한 가구가 전국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귀농한 4067가구(9723명·가구당 2.4명) 가운데 전남의 귀농 인구는 768가구로 경북(1112가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북(611가구), 경남(535가구) 등의 순이었다. 전남을 비롯, 경북·전북·경남 4개 도의 귀

농 인구는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반면, 충남(324가구), 강원(312가구), 경기(89가구), 제주(44가구) 등은 귀농·귀촌가구가 적었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08년 289가구(9723명·가구당 2.4명) 인 귀농 인구는 2009년 549가구, 지난해 768가구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행복마을 사업과 친환경 농업 등 경쟁력 있는 농촌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성과라는 게 전남

도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고흥(125가구)이 가장 많았고 강진(103명), 해남(83명), 장흥(76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귀농·귀촌인구는 지난 2001년 880가구, 2004년 1302가구, 2008년 2218가구, 2009년 4080가구, 2010년 4067가구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귀농 가구들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50대가 35.8%로 가장 많았고 40대 30.2%를 차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평동 軍훈려장, 빛그린 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3곳

광주시, 과학벨트 후보지로 제시

광주시가 평동 군 훈려장, 광주·전남 빛그린 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등 3곳을 국제과학벨트 후보지로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제과학벨트 후보지 선정 기준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외 제외된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오는 22일까지 후보지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7일 “연구기관의 집적 수준, 기반 안정성,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광주시가 국제과학벨트 후보지로서 최적지이며 부지역시 가격이나 개발 착수 여건, 주변 교통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돼 서둘러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 국제과학벨트 후보지 후보지를 100만평 이상으로 설정했다가 이번 부지 수요조사에서는 50만평(165만㎡) 이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해 그 배경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특정지역을 부지로 염두에 두고 그에 맞춰 부지 면적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제과학벨트 후보지는 ▲토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이 완료된 개발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토지 ▲토지개발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된 인허가 행위에 착수한 토지 ▲100%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로 즉시 개발이 가능한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정부의 입지선정 평가기준에 따르면 부지 사용시기, 가격 등도

중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지 면적 축소와 관련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분원에 들어갈 연구단지(25개) 수가 줄어 그동안 광주시가 주장해온 삼각 벨트로 분산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광주·전남 지역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해 정부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국제과학벨트 후보지 후보지를 위해 벌이고 있는 ‘법시·도민 300만명 서명 운동’에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까지 서명자가 50만명을 넘어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그린만평

- 김중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관객 모독(?)

전남도 구제역 피해 167억

전남도가 전국을 휩쓸다시피 한 구제역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167억원의 예산과 22만명의 인원을 동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시작돼 전국을 휩쓸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최근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사실상 모든 방역상황이 끝났다. 전남의 경우 지난 1934년 이후 이어온 구제역 청정지역의 명성을 지켜 내면서 단 한 차례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 축산 지역’이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전국적으로 수백만 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되는 등 대재앙에도 전남에서 사육중인 소 54만마리와 돼지 91만 마리는

무사했다. 그만큼 슬한 기록도 양상됐다. 우선, 134일간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도내 고속도로 입구와 주요 도로에 방역 통제소 270개소를 설치했고 591개 공동방제단을 총동원해 매주 2회 이상의 방역 활동을 벌였다. 이 기간 동원된 총인원은 22만명으로, 하루 1600여명 이상으로 동원된 셈이다. 계속된 방역 활동으로 보성군청 공무원이 과로로 숨지는 등 과로와 교통사고로 5명의 공무원 사상자가 나왔다. 투입된 긴급 방역비도 167억원(국비 96억원, 도비 3억원, 시·군비 68억원)에 이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터치센서 생산업체 4곳과

150억원 규모 투자유치 협약 체결

최첨단 신성장 동력산업인 터치센서 생산업체 4곳이 광주에 추가로 입주하기로 하는 등 관련기업들이 광주로 몰려들면서 광주가 터치센서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광주시는 18일 코스타 상정업체인 광전자부품전문기업 (주)옵트론텍, 디스플레이 설비 및 검사장비 전문기업 (주)영우DSP, 반도체 케미컬 기업 (주)유니맥, 3D소프트웨어 기업 (주)세이엔 등 터치센서 관련 4개 기업과 총 투자액 1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엔 터치센서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솔렌시스씨가 광주에 공장을 설립했고 지난해에는 현대아이티퍼가 터치센서 패널모듈 제조공장을 광주에 설립하기로 하는 등 터치 센서 관련 업체들의 광주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터치센서는 신소재, 전기전자, 화학, 기계공학, S/W 등이 융·복합한 분야로 이번 투자협약기업들은 솔렌시스와 연계해 새로운 양산장비 및 공정개발, 터치패널 화학처리용 배합물 개발, 터치 자동검사장비 개발, 3D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오늘 전남도청 결의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기 위한 범도민지원협의회 총회가 18일 오후 3시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렸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2010년 협의회 예산 결산, 2011년 사업계획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추진 상황 등의 보고에 이어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황금추 의장의 후임 의장 선출과 박람회 참여 열기 확산을 위한 성공 개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성공 개최 결의대회에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우리가 앞장 선다’는 구호와 함께 도민 의지를 다지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분할합병공고

주식회사 동원정보통신(이하 갑)과 주식회사 다원정보(이하 을)은 2011년 3월 16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그 재(재)업의 일부(정보통신공사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합병할 예정임을 통고합니다. 갑은 본공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16일 제 1회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따라 을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의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제출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분할 합병하고자 하는 정보통신공사사업 종류 : 정보통신공사사업(제 14032호)
2. 각 분할 예정일 : 2011년 4월 16일

2011년 03월 16일

양도자(갑) 주식회사 동원정보통신
광주광역시 북구 압동 94-237
대표이사 김용욱

양수자(을) 주식회사 다원정보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15-4번지
대표이사 김용탁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법

시간번호 : 2011-년란83

사 망 자 : 김선자 (650720-2650230)

최후주소 : 전남 신안군 암태면 당사리 산100-1

등록기준지 : 전남 신안군 암태면 당사리 262

위 망 김선자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 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1년 04월 18일

- 공 고 인 : 김현식
- 한정승인수리일 : 2011년 03월 28일
- 공고기간 : 2011.04.18 ~ 2011.06.17
- 신고 처 : 김정환(010-6860-8171)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의의 주권재주공고)

대영기전주식회사 (갑)과 주식회사 삼도(을)은 서기 2011년 4월 14일 임시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전기공사업”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합병하고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의사의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 게재 일자로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제출과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시거나 기각하여 공고 및 최고함.

서기 2011년 4월 18일

양도인(갑) 대영기전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730-13
대표이사 이병익

양수인(을) 주식회사 삼도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741-2
대표이사 김철수

공무원대출

공무원 대출

- ▶ 대 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 액 : 500만원~8,000만원
- ▶ 금 리 :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중이신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 액 : 500만원~5,000만원
- ▶ 금 리 : 년 9%~
- ▶ 대 상 :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부중개업 등록기간 : 대구광역시 대표자 : 백영학
계1금융권이자율:최저년5.5%-13%(연체금리 18%-22%) 계2금융권이자율:최저년11.9%~33%(연체금리 22%-44%) 계3금융권이자율:최저년33%-44%(연체금리 44%)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록서비스 · 개인회생지원관리 신청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리)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부 제 642호)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과다대출 포함)

APT 한도 : KBI시세 - 80%+α (60%) 전세권 한도 : 보증금의 - 80%
담보대출 금리 : 연 3.93%~ 담보대출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용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540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